


공동체 소식




5월 성모님의 달

계절의 여왕 5월!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성모님의 달입니다.
캔사스 한인 성당 가족 모두 사랑 안에서 행복한 5월을 기원합니다

【실천사항】

1. 매일 묵주기도 바치기
2. 일주일에 한번이상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3. 일주일에 한번이상 평일미사에 참여하기



5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녜스)**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올리안나)** 이원준(요한) 가정

오늘은 “부활 제6주일” 입니다.

‘**사랑의 박사**’ 라고 칭송받는 신학자 발타사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사랑의 완전한 정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원하는 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은 것이 부딪히기도 하여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배척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서하고 회생하는 것, 즉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다운 사랑입니다.

오늘은 “Mother’s day” 입니다.

오늘은 “Mother’s day”를 맞이하여 남성교우들이 애찬을 준비합니다. 여성교우님들께서는 남성교우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단 입단식

복사단 입단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룩한 하느님 제단에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사단에 입단하는 아이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 일 시 : 5월 20일(주일) 중심미사 때
- 장 소 : 성당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8시) 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바자회 관련공지

- 5월 19일(토) : 가라지세일 및 음식 판매
- 5월 20일(주일) : Silent auction
- * 도네이션 해주실 물건들은 5월 13일(주일) 미사 후, 5월 18일(금) 행사 전일 저녁 7시에 성당지하로 가져다주십시오. 세일전날인 **18일(금)** 저녁 7시부터 분류 및 태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분과원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식 준비하겠습니다.

2012년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운 치유의 이뤄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나는 하느님의 희망이 되고 싶다.**”
- 일 시 : **6월 19(화) - 20일(수) 저녁 8시**
- 강 사 : **정건석 프랜시스 신부**
(어스틴 성 김대건 성당 주임신부 및 미중남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5	220	498, 197	어머니은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5/13)	김명은(안 젤 라) 김수연(올리안나)	류기범(요 셉) 신혜경(마 리 아)
다음주일 (05/20)	김수연(올리안나)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5/13)	남성 교우
다음주일(05/20)	지은경 리브가 , 이대숙 사비나, 박정옥 수산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다음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5월 6일>
- 미사참례 : 83명
- 주일헌금 : \$412
- 교 무 금 : \$182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평 일 :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싹틀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대구 성모당
대구대교구, 대구시 중구 남산 3동 소재.

1911년 대구대목구가 설립되면서 부임한 드망즈 주교는 교구에 꼭 필요한 주교관과 신학교 건립, 주교 좌성당 증축이 이뤄지면 교구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성모동굴을 세우겠다고 서원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18년 축성식을 가진 성모당은 신자들이 즐겨 찾는 곳일 뿐 아니라 가톨릭 성모신심의 중심지로 일반인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명소이다. 동굴 위에는 교구 설립과 세 소원이 이뤄진 연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바친 서원에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주호식 파드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사도 10,25-26.34-35.44-48 <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렸다. >



주 님 께 서 구 원 하 심 백 성 들 앞 에 서 밝 히 셨 도 다.

-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 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께서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손이 거룩하신 그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
- 주님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을 앞에서 밝히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진실을 아니 잊으셨도다. ◎
- 땅 끝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모두 우러러 보았도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 즐기어라 기뻐하여라 고에 맞춰 노래하여라. ◎

제 2 독서 : 1요한 4,7-10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 요한 15,9-17 <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말씀의 이삭

“이론과 생각의 감옥”



우리 사랑은 너무나 고급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상하게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의 이념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걸레를 들어 얼룩지고 그늘진 자리를 닦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뭇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뭇이고, 나는 그저 고상하게 사랑을 노래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토론하고 나름대로의 정의는 내리는 일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실제로는 사랑해야한다는 생각과 겉치레만을 수북하게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려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수많은 판단과 편견으로 가득찬 우리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라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이제 생각이나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 등 수없이 좋은 말씀을 내세운 종교들과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더욱 한심스러워지고, 안타깝게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실천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사랑해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래서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지도자들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뭇으로 맡겨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자신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한 신께 인간은 감사를 드려야 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신이 창조한 세상과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얼렁뚱땅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나 정의로 내려진 사랑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라는 창고와 이론이라는 상자에 갇혀있는 사랑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가치를 정립하고 체계화한 학자들보다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성자로 모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닮고자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로 아름다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삶을 그저 예수님 당신의 뭇이라고 떼어놓고는 신학자들이 풀이해놓은 이론이라는 감옥과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야합니다. 그것도 살아야지 하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도 되고, 그만두어도 되는 선택사항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한계를 모르는 그런 사랑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나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고이고 썩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송은그림 - 성당계명, 발목부츠, 여자일곱, 가지, 향아리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어머니의 기도시간

전쟁터에서 한참 교전 중 한 병사가 앞장을 섰다가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져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부상당한 병사는 고통스러워하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소대장이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 뛰어나가 저 병사를 구해 이 참호 속으로 데려오라.”

그러나 모두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병사가 시계를 보더니

“소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뛰쳐나가 업고 달려 왔습니다.

교전이 끝난 후 소대장이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자네만은 나갈 수 있었나?”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뛰어나간 바로 그 시간은,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힘은 용기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래

어머니의 은혜

1. 낱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2.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3.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하늘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